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Skin, the Deepest Part)》, 《4 도씨(4°C)》展 개최
(2024.1.30.-4.28.)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AI와 차별화된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3부작 기획전 ‘논알고리즘 챌린지(Non-Algorithm Challenge)’ 프로젝트 진행
- 2·3부 전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4도씨》는 인간의 ‘신체성’과 ‘기억’을 재조명
- 국내 유망 작가 6인 (SEOM:(섬:), 민찬욱, 박관우, 오묘초, 정찬민, 태킴)의 회화·영상·설치 등 다양한 예술 부문을 아우르는 작품 전시

태광그룹 세화미술관(관장 서혜옥)은 2024년 1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논알고리즘 챌린지’ 프로젝트의 2부 전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와 3부 전시 《4도씨》를 동시 개최한다. 세화미술관은 고도화된 인공지능과의 공존 시대에 AI와 차별화된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3부작 기획전시 프로젝트 ‘논알고리즘 챌린지’의 첫번째 전시 《귀맞춤》을 작년 10월에 선보였다. 1부 전시가 인간의 청각에 주목한 작업들을 소개하며 소리를 통해 인간 존재를 사유해보고자 했다면, 이어서 열리는 2·3부 전시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속 생물학적 ‘신체’로 ‘기억’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2부 전시인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는 세계와 자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사람의 ‘신체’를 주제로 한다.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행위는 곧 스스로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자유의지를 행하는 출발점이 된다. 참여작가 민찬욱, 박관우, 정찬민 작가는 물리적인 신체에서 비롯되는 탄생, 이동, 죽음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휴먼 혹은 인공지능에 적용될 때 어떻게 변화할지, 살갓을 지닌 인간의 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의 경계에서 ‘살아있음’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3부 전시인 《4도씨》는 모든 것을 모형화하는 이 시대에서 여전히 알고리즘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억’을 주제로 한다. 콜렉티브 그룹 SEOM:(섬:)과 오묘초, 태킴 작가는 기억이 지닌 모순 속에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에 응답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합리적인 답변과 상이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징표로서 기억이 지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도씨》는 감각과 기억, (비)인간과 기억, 미래와 기억을 다양하게 연결 지으며,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려는 인공적

세계 바깥에서 생명에 대한 넓은 해답을 찾고자 한다.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4도씨》는 세화미술관 제 1, 2 전시장에서 관람 가능하며 유료로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점심시간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3월 9일(토) 오후 2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3월 16일(토) 오후 2시에는 《4도씨》 전시 참여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도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소식은 홈페이지 및 세화미술관 SNS 계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태광그룹 산하 세화예술문화재단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일주&선화 갤러리를 2017년 세화미술관으로 확장 개관하였다. 이후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끝>

○ 전시정보

제목 : 세화미술관

주최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www.sehwamuseum.org) / 후원 : 흥국생명

일정 : 2024.1.30.(화) ~ 2024.4.28.(일),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및 2/10(토), 3/1(금)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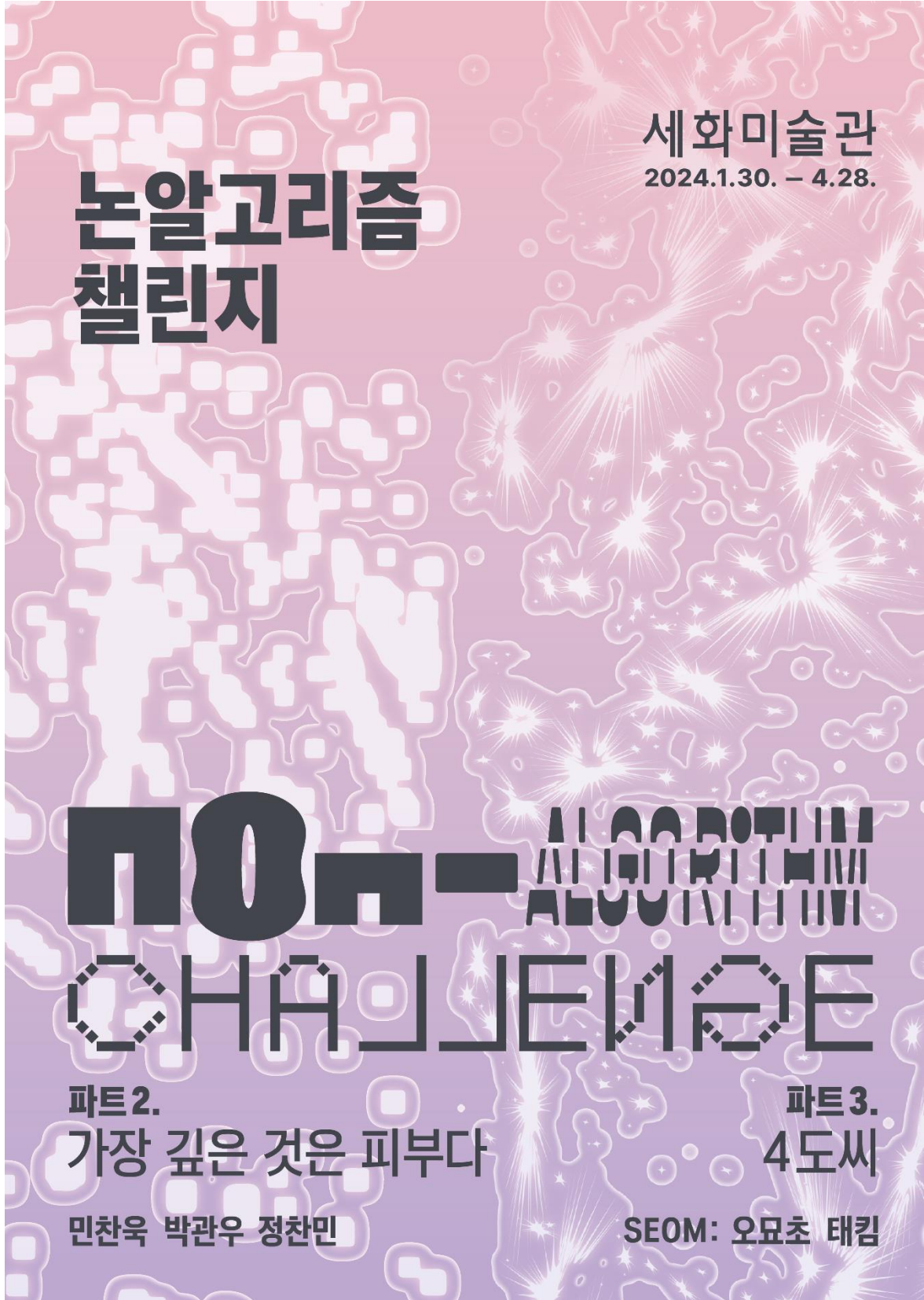
장소 : 세화미술관 제 1, 2전시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3층)

입장료 : 성인(5,000원), 청소년(4,000원) / 단체 20인 이상 할인가 적용

참여작가 : SEOM:(섬:), 민찬욱, 박관우, 오묘초, 정찬민, 태킴

문의 : 02-2002-7787 / sma@sehwamuseum.org

<p>붙임자료목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시 포스터 1부 2. 전시 기획글 각 1부 3. 작가 소개 각 1부 4. 작품 이미지 각 1부. 끝.
<p>담당자</p>	<p>세화미술관 석지훈 큐레이터 T. 02-2002-7787 M. 010-9905-4059 jihunsuk@sehwamuseum.org</p>



붙임 2-1

전시 기획글 - 2부 전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물로 부상했다. 확률적으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연산 속도와 정보 처리량이 인간의 뇌로 그 과정을 유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같이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도구의 역할을 이탈하여 '자아'를 가지게 될 때 이들을 생명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혹은 생물학적 신체를 벗어나 디지털 세계로 이전한 인간의 자아를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을지 '살아있음'에 대한 정의를 질문하게 만든다.

'논알고리즘 쉐린지'의 두 번째 전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는 세계와 자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사람의 '신체'를 주제로 한다.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인지 과정이 '뇌'의 단일한 판단이 아닌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뜨거운 사물을 만졌을 때 손을 떼거나, 매캐한 먼지를 들이마실 때 눈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는 행동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행동이 아닌, 중추 신경계가 신속히 반응하는 무조건 반사의 영역이다.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행위는 곧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자유의지'를 행하는 출발점이 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세계와 몸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감각하는 신체를 지녔기에 주체와 객체가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은 자신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건드릴 때, 만짐을 당하는 오른손과 만짐을 행하는 왼손의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즉 '몸'을 지닌 인간은 수용자이자 행위자로서 타자와 세계 그리고 자신을 유기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욕망, 두려움 같은 감정에 대한 동기를 수치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욕구는 정확한 좌표를 생성할 수 없으며, 이 감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도 미지의 영역이다. 타인과 살을 맞대며 쌓은 유대감, 표정이나 연설로 드러나는 감정은 고정값을 도출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며 개개인의 살갓 위로 축적한 고유한 체험이다.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라는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체화한 신체적 경험에서부터 타인과 세계를 지각하여 마침내 존재에 도달한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 민찬욱, 박관우, 정찬민은 생물학적 신체에서 비롯되는 탄생, 이동, 죽음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휴먼 혹은 인공지능에 적용될 때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인간의 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들의 작업은 인간을 정의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규정짓는 행위를 통해 파생되는 질문을 던진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전시장으로 발걸음 한 개개인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 지극히 사적이고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다.

● “Ce qu'il y a de plus profond dans l'homme, c'est la peau.”, P. Valéry, *L'Idée fixe ou Deux hommes à la mer* (1932), Paris, Gallimard, 1966. p.50.

디지털 미디어가 매끄럽게 포개진 시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 경계를 흐리는 듯한 이 시대에 과연 알고리즘으로 모형화하기 여전히 어려운 '무엇'이 인간에게 남아있을까? '논알고리즘 챌린지' 《4도씨》는 그 무엇을 '기억'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기억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이다. 이 의미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기억이 인지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러한 인지 과정을 모방하여 설계한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특히 딥러닝 모델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델이라고 하니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쌓아 감으로써 체화(體化)하게 되는 광범위한 인지 능력과 주관적 경험은 인공지능에게 있지 않다. 몸을 입고 있어 감각할 수 있기에 얻어지는 경험과 기억, 인지 능력은 인간에게 한정된다. 물론 기계나 인공지능에게 있어 데이터는 인간의 기억처럼 필수적인 작동 기반이지만, 그러한 데이터가 기억과 같이 어떤 모순이나 망각, 혹은 도약이나 비약과 같이 비합리적인 과정, 비결정적인 작동방식을 입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억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에는 비합리적 모순과 마주한 의문이 들어선다. '기억은 어떻게 가라앉고 떠오를까? 한번도 본 적 없는 곳을 그리워할 어떤 태곳적 기억은 없을까? 디지털 가상 세계의 (비)인간 존재들은 어떤 기억을 지닌 존재로 살게 되는 걸까? 혹시 모든 기억이 돌연 사라진다면? 다른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면?' 《4도씨》 전시는 이러한 호기심과 질문을 던지며, 감각과 기억, (비)인간과 기억, 미래와 기억을 다양하게 연결 지어보는 시도로 SEOM: (섬:), 오묘초, 태킴의 작품을 선보인다.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다움을 '기억' 가운데 찾아보는 시도 곁에 질문은 꼬리를 물었다. '논알고리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감각, 몸, 이제 기억을 짚고 넘어가는 지점에 무엇을 이끌어볼 수 있을까? 《4도씨》는 매끈한 거울 같은 인공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감수할 것이 있는 세계와 기억을 연결 짓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세계를 상상하던 중 섬씨 4도씨의 물은 바로 그 자체 은유였다.● 추운 겨울철, 강물이 얼어붙어 모든 생명이 소거된 듯 보여도 강물의 맨 밑바닥에는 4도씨의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물은 위로 올라간다. 이로써 얼어붙은 강물에서도 물고기는 살아간다. 섬씨 4도씨 물의 속성에 흐르는 생명이 보호받는 신비, 그 세계를 전시 타이틀로 삼았다. 《4도씨》 전시는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건드리고, 열개를 짜내면서,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억의 인지 과정을 마음에 담아보며 이 모순적이고 어설픈 무엇이, 어쩌면 세계의 모든 존재를 모형 삼아 시뮬레이션 하려는 인공적 세계 바깥에서 생명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이어갈 4도씨 물의 공간, 길목이 될 것이라 제안해본다.

● 전시 제목 "4도씨"는 2022년 타계한 이어령 선생의 책 『생명이 자본이다』 3장의 '살아있는 물 - 섬씨 4 °C의 비밀'에서 착안하였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철 강물이 결빙되면 모든 생명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섬씨 4도씨의 강물은 그 아래 여전히 흐른다. 물은 4도씨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밀도가 최대)이다. 4도씨의 강물이 밑바닥에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다.

붙임 3-1	2부 전시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참여작가 소개
<p>민찬욱 (b.1984)</p>	<p>민찬욱은 동국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전공과 뉴욕대학교 ITP 전공 석사를 마쳤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 속 삶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변화된 삶의 개념과 범위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공간 속 '디지털 휴먼'과 현실 세계의 '인간'에게 실존이나 죽음 같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선보인다.</p> <p>《시간 속 시간》(2022, 0 갤러리), 《누구의 낙서인가》(2022, 을지예술센터), 《누군가의 낙서》(2022, 오우도), 《완벽한 낙서》(2022, XYZ SEOUL), 《Humanoid Objects》(2022, 갤러리 도스)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낮선 만남》(2022, 서울서예박물관), 《접는 도시》(2021, 을지예술센터), 《비확정 매뉴얼:드로잉 시점》(2021, 양평군립미술관), 《내일의 예술》(2021, 한가람디자인미술관), 《Hacking Arts 2016》(2016, MIT Media Lab)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p>
<p>정찬민 (b.1991)</p>	<p>정찬민은 중앙대학교에서 공연영상학부 사진학과 순수사진을 전공하고, 이후 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순수사진 전공 졸업,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 전공을 졸업했다. 미디어 설치와 3D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을 통해 빠르게 진화 중인 기술환경 속에서 강요되는 삶의 방식과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지점을 관찰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행동하는 몸'을 지각하여 스스로의 존재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증상과 경험에 주목한다.</p> <p>개인전으로 《행동부피》(대안공간 루프, 2023), 《우린 결국 닳은 모양》(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갤러리, 2021), 《공간이 되려는 것들》(스페이스원, 2017)을 선보였고, 《Meta-Breathing》(피어 컨템포러리, 2023), 《Somewhere over there》(인사동 KOTE, 2022), 《사공보다 많은 산》(강원작가트리엔날레,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p>
<p>박관우 (b.1990)</p>	<p>박관우는 홍익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순수미술 조소 전공 석사를 마쳤다. 퍼포먼스와 해프닝, 이벤트의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작업을 전개하며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정체화하는 요소와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를 규정짓는 조건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계된 체험'의 형식을 빌려 탐구한다. 일상적이면서도 익숙한 상황에 이질적인 장치를 추가하거나 환경을 구축하여 실재와 가상의 경계 사이, 인간의 지각 작용을 본질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작업을 선보인다.</p> <p>개인전으로 《이상한 꿈 / 미제사건》(2023, 더 레퍼런스), 《졸다가 곧 꿈》(2022, 갤러리 조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2020, 스페이스38)를 선보였으며, 단독 프로젝트로 <클럽 리얼리티>(2022, 코리아나 미술관), <늑대와 함께 춤을>(2021,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를 펼쳤다. 《하얀 벽의 고백》(2023, 아트스페이스 호화), 《제로원데이 2022》(2022, 에스팩토리), 《튜링 테스트: AI의 사랑 고백》(2022, 서울대학교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p>

붙임 3-2	3부 전시 《4도씨》 참여작가 소개
<p>SEOM:(섬:)</p> <p>서하늬 (b.1988)</p> <p>엄예술 (b.1987)</p>	<p>섬:은 공간의 물리적 특징과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소재로 삼아 소리 매체를 활용한 설치 작업과 사운드워크(soundwalk) 작업을 하는 2021년 결성된 콜렉티브 그룹이다. 서하늬, 엄예술 작가가 함께하는 이 그룹은 무엇보다 '관객의 경험'에 주력한 작업에 전착한다. 일상의 소리를 공간에 끌어와 퍼포먼스적인 작업으로 풀거나, '듣기'와 '걷기'라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익숙한 장소를 둘러싼 이면을 발견하는 작업을 수행해나간다. 소리가 공간을 환기시키는 과정에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이 개입하는 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소리의 심상(心象)을 작품에 접목하는 방법을 실험한다.</p> <p>그룹 결성 후 《Drama》(2023,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Fluide (Incheon) Fluide]-인천에 코끼리가 산다》(2022, 인천아트플랫폼), 《Full Box Project》(2022, CoSMo40) 등의 작업을 선보이는 한편, 관객참여형 워크숍 'Sound-marking'(2023, BOAN1942), 'Museum Groove'(2023, 아르코미술관), '가을엔 소리산책-해시(海市)'(2022, 인천아트플랫폼) 등의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p>
<p>오묘초 (b.1984)</p>	<p>오묘초는 골드스미스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수학했다. 주로 조각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은 VR 영상기술에도 관심을 두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신경·인지적 경험을 물질적으로 번역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뇌과학과 협업을 통해 기억의 전이와 대리 감각 현상에 대해 탐구했다. 타자의 기억으로 자신의 삶을 편집하고 기억에 의해 바뀌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미래 시점에서 살고 있는 지성체의 형태와 물질로 상상하고 이를 SF적으로 접근하여 소설과 설치 작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 미래에서 과거가 된 현재를 어떻게 기억할지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p> <p>《변형 액체》(2023, 수림큐브), 《펀치 드링크》(2023, 작은미술관 보구곳), 《배럴아이》(2022, 오시선), 《점보수림프》(2021,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택시더미아》(2019, n/a)의 개인전을, 《풍경들》(2023, 우손갤러리), 《프리즈 필름》(2023, 인사미술공간), 《모두 다른 빛깔》(2022,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을 비롯한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여왔다.</p>
<p>태킴 (b.1986)</p>	<p>태킴은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학사, 석사 졸업 후 슬레이드미술대학교 회화과 석사 및 서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꾸준한 작업을 이어온 작가는 자신을 '1세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지칭하며 사회생활을 형성해온 기간에 특히 온라인 가상 공간과 아바타 사이에서 파생되는 복잡미묘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디지털과 현실 간의 이질감과 인간을 모방했기에 나타나는 아바타의 (불)필요한 행동, 현실과는 다르게 죽음과 데미지가 리셋되는 세계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아 작업하고 탐구한다.</p> <p>《r의 감수성》(2023, 갤러리 세븐), 《Bloom》(2023, 런던 Kristin Hjellegjerde Gallery), 《빌려입은 피부》(2022, 공근혜갤러리), 《파티원 구함》(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핑의 축축한 터치》(2020, 갤러리 도스) 등의 개인전을, 《투사와 투사》(2023, 인천아트플랫폼), 《피니치오니》(2023, 갤러리 띠오), 《잠재감각》(2022, 배림가옥)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다.</p>

붙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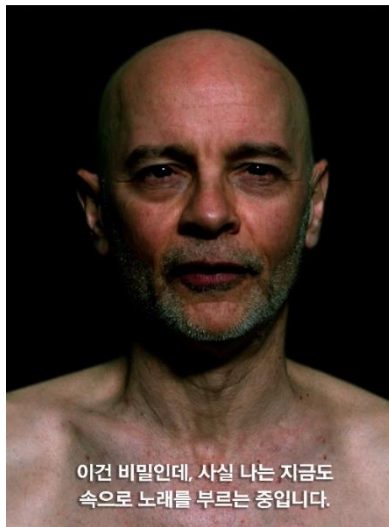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홍보용 이미지



민찬욱, <죽은자의 대화>, 2024, 비디오 설치, 22 분, 가변설치,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사진 전병철. ©세화미술관



정찬민, <이동부피>, 2024, 팬모터, PVC, 철제 조형물, 모터 제어 장치, 각 200 x 90 cm (5점),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사진 전병철. ©세화미술관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는 지금도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나의 사라 엘리스 요코 킹 침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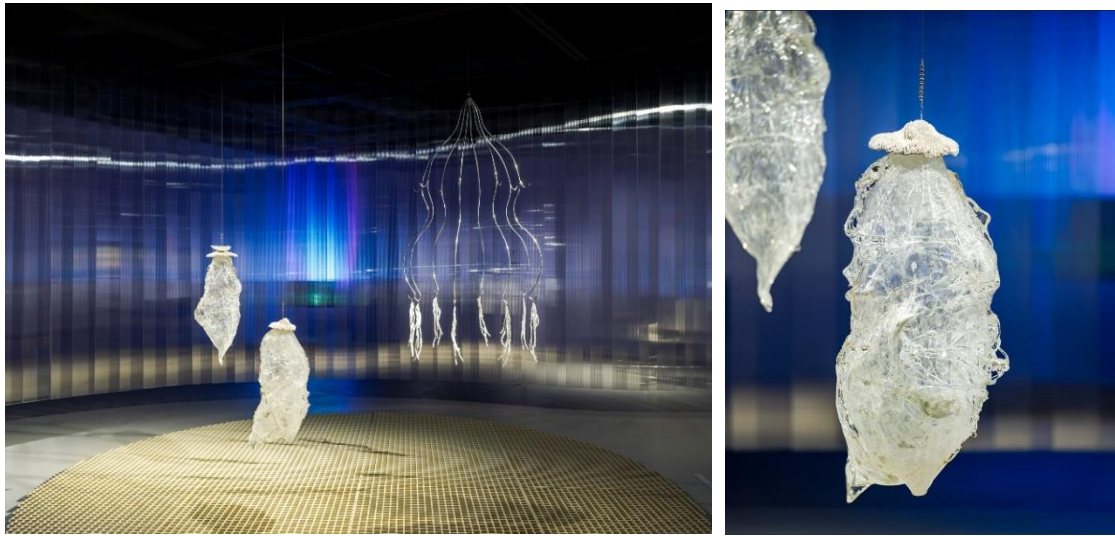
박관우, <인간의 대화 5>, 2024, 인간 인터프리터와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구성된 대화, 2가지 종류의 2채널 영상, 25분,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세화미술관

붙임 4-2

《4도씨》 홍보용 이미지



SEOM:(섬:), <드라마>, 2024, 소리모들, 테이블, 의자, 무대설치, 450 x 240 x 303 cm,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사진 전병철. ©세화미술관



오묘초, <선택받은 이질적 존재들>, 2023-2024,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FRP, 석고, 플라스틱, 가변설치,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사진 전병철. ©세화미술관



태킴, <지평선의 구형성: 지구 곡률을 포용하다>, 2023, 비단에 채색, 152 x 519 cm, 세화미술관 제작지원 ©세화미술관